

책임자 김세중 실장(동향분석실, 3775-9059)
 작성자 김세중 연구위원(3775-9059)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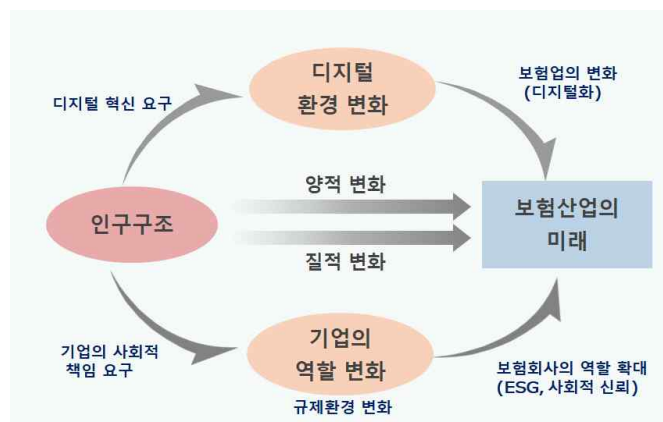
보도 2021. 8. 13(금) 조간부터
 배포 2021. 8. 11(수)
 매수 총 4매

보험연구원, 『Next Insurance (Ⅱ):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』 CEO Report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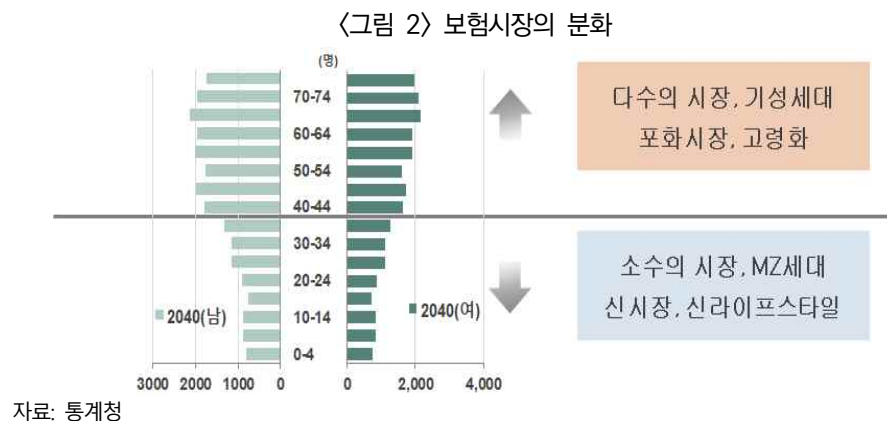
“보험산업은 인구구조의 양적·질적 변화에 대비해야”

-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(동향분석실 실장)은 인구구조의 양적·질적 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Next Insurance 두 번째 이슈로 『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논의 배경)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,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
〈그림 1〉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



-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여 보험업의 변화를 야기하고,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를 통해 ESG, 사회적 신뢰 등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(보험시장 축소 대응)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보험시장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,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함
 -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는 전통적 보험산업 축소를 야기하며, 소득과 부의 양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보험가입여력 약화가 예상됨
 - 보험산업은 성장정체 해결을 위해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,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,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 확대 등이 요구됨
- (경쟁 심화 및 소비자 집단 이원화)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기존 보험산업과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를 야기하고, 세대 간 소득 및 부의 양극화는 보험시장 내 소비자 집단의 이원화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



- 디지털 세대의 부상은 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며, 빅테크는 일상적인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종합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험을 제공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
- 보험시장은 인구비중이 높으나 포화되어 있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

하지 않은 고령층 시장과 인구비중은 낮지만 신시장이며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 시장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큼

- (대응전략) 보험산업은 변화하는 경쟁구도에 적응하고, 고연령과 저연령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 - 보험산업은 새로운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을 위해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,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함
 -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, 간병·요양 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하고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
 - 저연령 시장의 경우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 채널전략이 유효할 것임
- (보험의 역할 재정립)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공적 사회 보장시스템 약화를 야기하여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수 있으며,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‘보험’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‘보험’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
 - 세대갈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경우 공적보장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음
 - 보험산업은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MZ세대가 ‘보험’이라는 개념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
 - ‘보험’이 미래 소비자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 손실보전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
- (고령사회 환경 조성)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임
 -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, MZ세대까지 고령층이 되는 206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인구비중이 46.1%로 절반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는

등 우리나라는 고령층 중심의 사회구조로 변화할 것임

- 인구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은 고령층 위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
- 보험산업은 장기적으로 치매, 간병·요양 등 정신건강 관련 보장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중심의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

첨부: CEO Report 『Next Insurance (Ⅱ):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